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소비자 심리,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 Bloomberg: 미 신규주택 착공건수, 2020년 이래 가장 크게 감소
- Bloomberg: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입장에 대해 궁금한 5가지 사항
- Bloomberg: 강한 소비와 실업수당 감소가 경제 우려 부담 덜어내

[미국 금융]

- WSJ: 투자자들은 경제와 연준에 대해 불확실성 느껴

[미국 대선]

- WSJ: 해리스 후보, 3백만 신규 주택 건설과 아동 세금 공제 확대 강조

[미국 생활]

- Bloomberg: 뉴저지 트랜짓, 9월 초까지 기차와 버스 서비스 무료 제공
- CNBC: 작년 미국 출산율 최저... "비용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에너지]

- WSJ: '탈석탄화' 노력 늦춰진다... 전력 수요 급증 탓
- CNBC: 미 원유 3% 하락... 카타르 총리, 이란에 "이스라엘 공격 자제" 요청 후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Yahoo Finance: 외식업계 '자동화' 도입... 로봇이 빠르고 비용도 낮춰
- Yahoo Finance: 디즈니, 가격 인상에 따른 방문객 감소 위기
- CNBC: 스트리밍 서비스, 점점 더 비싸진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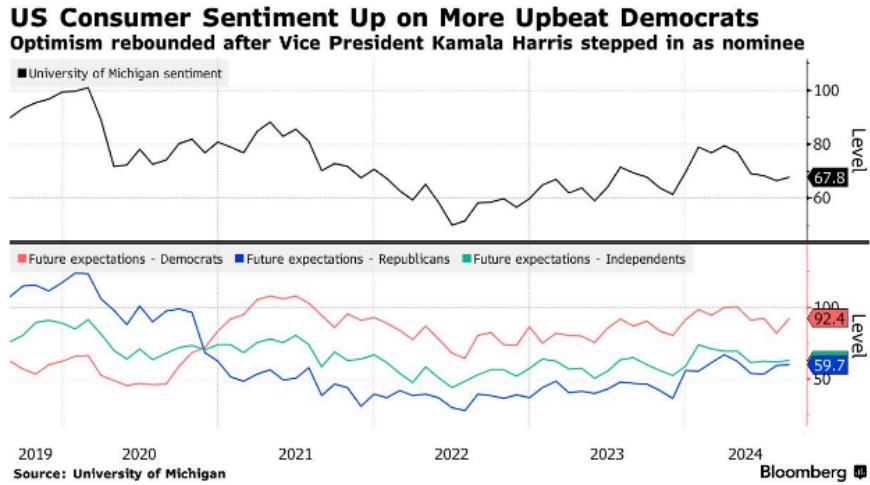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Increases for First Time in Five Months

미 소비자 심리,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 8월 초에 미 소비자 심리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물가가 둔화되면서 자신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 더 낙관적인 예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8월 소비자 심리 예비 지수는 7월의 66.4에서 67.8로 상승했다. 당초 블룸버그의 전문가 설문조사 예상치는 66.9였다.
- 소비자들은 내년에 물가가 2.9% 인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는 전달과 동일한 수치다. 그리고 내년 5년부터 10년까지 물가는 3% 상승할 것으로

로 보고 있다.

- 이같은 심리 지수의 상승은 부분적으로 바이든의 불출마 때문인데 특히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 민주당 유권자들 간에 특히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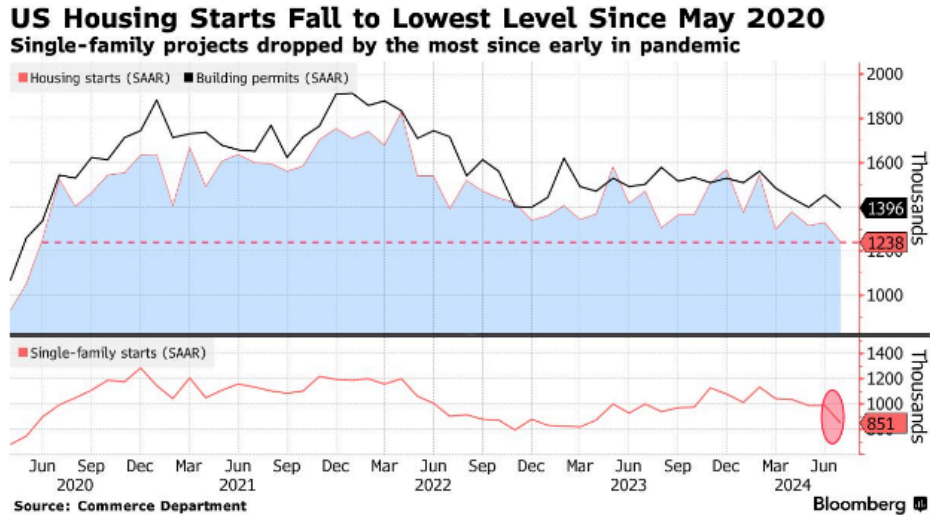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New US Home Construction Falls to Slowest Pace Since May 2020

미 신규 주택 착공건수, 2020년 이래 가장 크게 감소

- 건설업체들이 재고 수준을 높은, 이른바 수요 약세를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신규 주택 건설 건수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6.8% 줄어든 연율 1백20만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이래 단독주택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로 오늘 금요일 연방정부는 발표했다. 특히 남부 지역의 상당한 감소 현상은 허리케인 Beryl의 여파를 반영하고 있다.
- 현재 여전히 높은 모기지율과 집값이 많은 주택 소유 희망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재고는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건축업자들은 신축을 줄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ive Big Questions for the Fed at Jackson Hole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입장에 대해 궁금한 5가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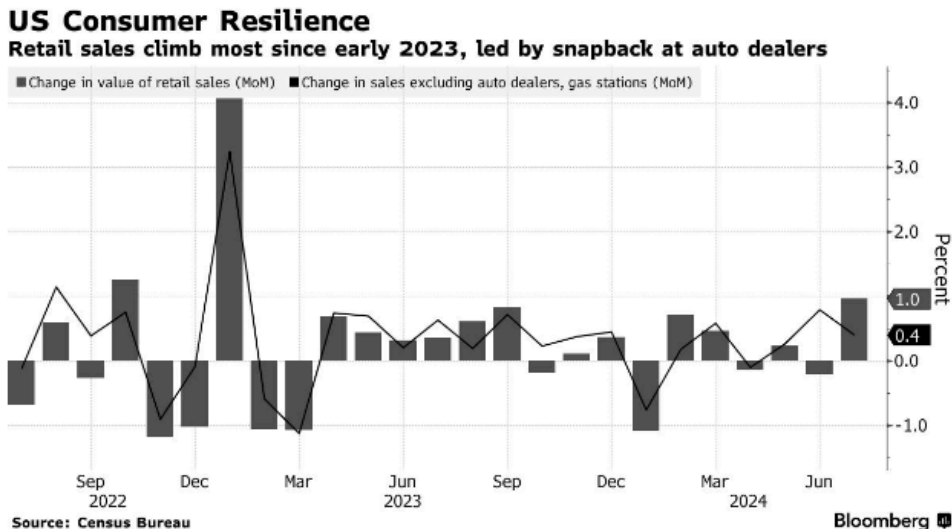
-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다음주 와이오밍주 잭슨홀 연례 경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 여기서 연준이 9월에 금리 관련해 어떻게 할 예정인지 힌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궁금한 것은 5가지.
- 우선 금융 정책을 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이다. 연준은 팬데믹 당시에 단기 금리를 제로로 계속 유지하는 실수를 범했다. 선제적이지 않을 경우 금융 정책이 제약되는 상황이 되어 불필요하게 침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 인플레이 목표를 더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 연준이 인플레이 목표 범위(range)를 변경해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또한 연준이 언제 어떻게 이른바 양적 완화로 불리는 자산 구매에 개입할 것인지도 이슈다.
- 마지막으로 은행간 돈을 빌려주는 기준이 되는 연방 기준금리 목표치를 변경하느냐 하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teadfast US Consumer, Job Market Allay Concerns About Economy
강한 소비와 실업수당 감소가 경제 우려 부담 덜어내

- 어제 발표된 여전히 강한 소비 지출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발표로 인해 가뜩이나 고금리 상황인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었다.

- 어제 보도와 마찬가지로 7월 소매 판매 규모가 작년 초 이래가 가장 크게 성장했고 미 소비자들의 탄력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 또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7월초 이래 가장 크게 줄었다.
- EY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Lydia Boussour는 “미 소비자들이 계속 지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물론 앞으로 소비 위축은 보이지 않겠지만 다가오는 여러 분기 동안에 소비자들은 소비 지출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한마디로 7월 소비 지출 보고서는 경기가 소프트랜딩 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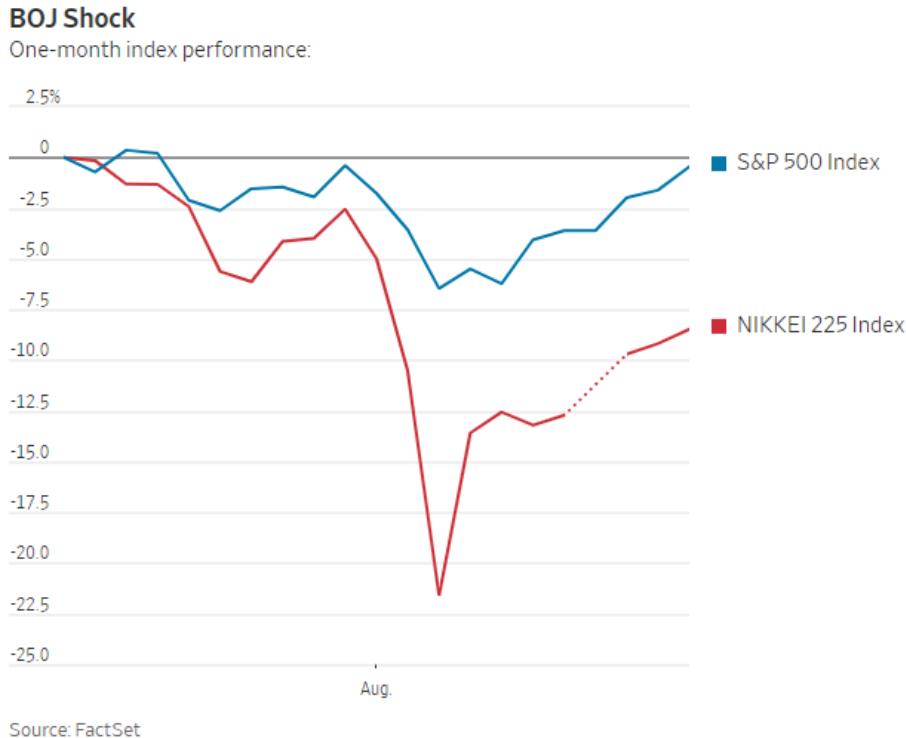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Investors Still Face Fog of Uncertainty on Economy, Fed
투자자들은 경제와 연준에 대해 불확실성 느껴

- 투자자들은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해 다소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경제와 연준의 금융 정책에 대한 전망에는 상당히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 즉,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물론 소프트랜딩을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지속적인 둔화 현상은 긍정적이다.
- 그러나 어제 목요일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전월에 비해 1% 올랐지만 이는 주로 자동차 판매 반등에 따른 것이라는 것. 딜러들이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6월에 받았는데 그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이다.
- 연준이 발표한 산업 생산 지표도 어제 목요일 발표됐는데 6월보다 7월에 0.6% 감소했다. 6월 수치도 하향 조정되었다.

- 당장 경착륙이 이뤄지지 않는 것지만 경제 모멘텀이 얼마나 둔화되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시장이 연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이상할 정도라는 것이다.
- 한편 시장은 현재 연준의 0.5% 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해 27.5%로 점치고 있는데 이는 1주일 전의 55% 가능성 보다 줄은 것이다.



WSJ 기사

[미국 대선]

WSJ: Harris to Call for Expanded Child Tax Credit, 3 Million New Housing Units

해리스 후보, 3백만 신규 주택 건설과 아동 세금 공제 확대 강조

-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는 본인의 집권 4년 동안에 신규 주택 3백만채를 건설하고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세금 공제 확대를 강조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곧 노스캐롤라이나 Raleigh의 유세 기간에 발표하게 된다.
- 그는 지난 팬데믹 기간 2021년에 시행되었던 아동당 3천6백불까지의 세금 공제 확대를 복원할 것으로 제안하고 또한 아동이 태어난 첫해에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최대 6천달러 제공하는 추가 세금 공제 확대 방안도 지지할 예정이다.

- 이 두 가지 아동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트럼프의 러닝 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WSJ 기사

[미국 생활]

Bloomberg: NJ Transit Dishes Out Free Rides After Summer Train Chaos 뉴저지 트랜짓, 9월 초까지 기차와 버스 서비스 무료 제공

- 뉴저지 트랜짓은 올여름 초에 운행 취소와 대규모 서비스 지연 사태를 겪은 후에 탑승자들에게 이번 8월 하순 1주일 동안 무료 탑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지사 필 머피는 어제 목요일,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모든 종류의 교통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월간 패스를 소지한 탑승객에게는 그들의 9월 구입하는 월간 패스에 대해 25% 할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승객들이 혼란과 불편함을 겪은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CNBC: ‘Neither of us feel interested’: More Americans don’t want kids, and it’s not just because of the money

작년 미국 출산율 최저... "비용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 국립보건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출산율이 여성 1명당 약 1.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노동 인구와 납세자가 줄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 하지만 미국인들이 부모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부모가 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것이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었고, 자녀 없이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50세 이하 중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한 사람의 57%가 “그냥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이유로는 다른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44%)와 세계 정세에 대한 우려(38%)가 있다.
- 미국 출산율 감소 원인중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의 감소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율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15% 감소했다. 이는 피임과 임신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부모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임신을 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한 요인이다. 위스콘신주 매디슨에 거주하는 캘리 프라이탁(Callie Freitag, 33세)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남편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느껴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것을 선호한다”며 “아이들을 24시간 돌보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CNBC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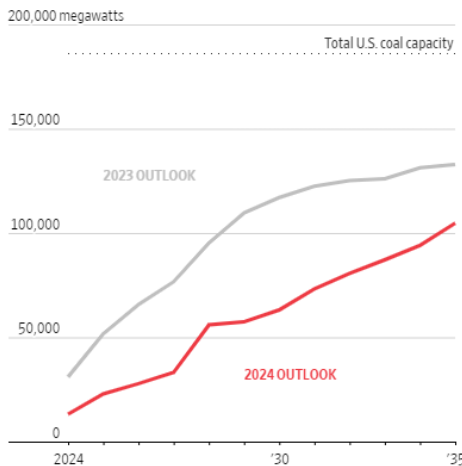
[에너지]

WSJ: How Booming Electricity Demand Is Stalling Efforts to Retire Coal and Gas, in Charts

‘탈석탄화’ 노력 늦춰진다... 전력 수요 급증 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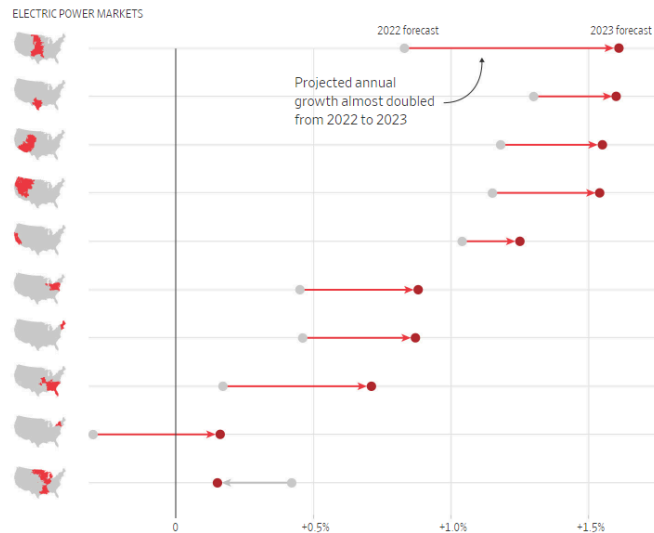
- 석탄은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오염 원인이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은 2035년까지 약 석탄 발전량 133,000메가와트를 폐쇄할 예정이었는데, 이는 남아있는 석탄 용량의 약 70%에 해당한다.
- 하지만 2024년에는 이 계획이 105,000메가와트로 줄어 약 21% 감소했다.
- 15년 동안 전력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전력 사용량 전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맞춰 노후화된 화석 연료 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에 차질을 빚고 있다.
- 대부분의 전력 회사는 2023년에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회사는 추가적인 수정이 예상된다.
- 지난 4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제조업, 그리고 광범위한 전기화가 이러한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이며,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전체 성장의 3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Cumulative retired coal energy, projected



Note: Cumulative since 2023. Source: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Five-year annualized demand growth, evolution of forecasts



Note: Based on five-year annual compound growth rates. Illustrated power-market regions are approximations. Sources: Grid Strategi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SJ 기사

CNBC: U.S. crude oil falls more than 2% as Qatar prime minister urges Iran to hold off on Israel attack**미 원유 3% 하락... 카타르 총리, 이란에 "이스라엘 공격 자제" 요청 후**

- 카타르가 가자 지구 휴전 협상 중 이란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미국 원유 선물이 금요일에 3% 하락했다.
- 카타르 총리는 목요일 도하에서 열린 가자 지구 휴전 협상 첫날 이후, 이란 지도자들에게 전화 통화를 했다. 두 명의 외교관에 따르면, 총리는 이 협상이 진전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경고하며,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Yahoo Finance: Robots are making salad bowls and delivering burgers as Sweetgreen, Chipotle, Shake Shack lean into automation****외식업계 '자동화' 도입... 로봇이 빠르고 비용도 낮춰**

- 소비자들이 짧은 대기 시간과 저렴한 가격의 음식을 선호하면서, 외식업체들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 스위트그린, 치폴레, 화이트캐슬, 셰이크쉑 같은 음식 체인점에서는 로봇이 샐러드를 준비하고, 부리또 볼을 만들며, 버거를 배달하고 있다.
- 스위트그린의 CEO 조나단 네만(Jonathan Neman)은 자동화 조리 시스템을 갖춘 '인피니트 키친(Infinite Kitchen)' 매장에 대해 "이제 3분 30초 만에 완벽한 식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음식의 품질도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 뉴욕 펜 플라자 지점에서 로봇은 시간당 500그릇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인피니트 키친 시범 매장은 일반 매장의 3분의 1만 운영 인력이 필요하며, 수작업이 줄어들면서 직원 교체율이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Yahoo Finance 기사

Finance Yahoo: Disney has a price problem. It has ambitious plans to fix that**디즈니, 가격 인상에 따른 방문객 감소 위기**

- 디즈니랜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약속을 모든 방문객에게 제공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가격 인상으로 인해 많은 가족

이 이 꿈의 여행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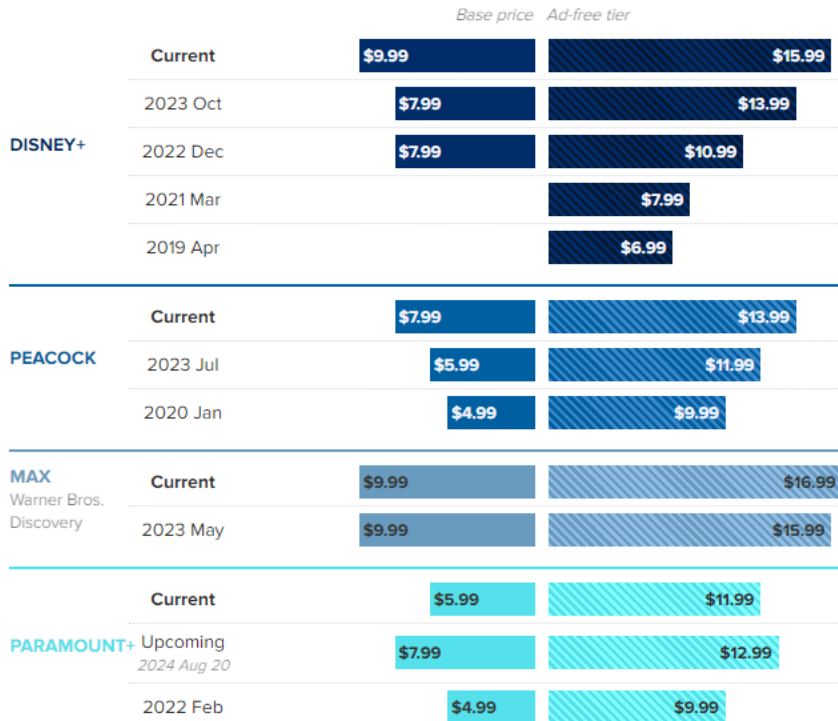
- 디즈니랜드 방문이 비싸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지난 5년 동안의 가격 인상 규모와 속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 디즈니는 8월 7일 실적 보고서에서, 방문객들이 가격에 더 민감해지면서 국내 파크 입장객 수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미국 내 파크의 수익이 감소했다. 디즈니의 CFO 휴 존스톤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비슷한 결과가 계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월트 디즈니 파크 앤 리조트의 회장 조쉬 다마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고개들이 계속해서 디즈니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대와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ahoo Finance 기사

CNBC: Streaming is getting more expensive for consumers. Here's why 스트리밍 서비스, 점점 더 비싸진다

- 스트리밍 서비스가 드디어 미디어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주기 시작했지만, 소비자들은 더 높은 구독 비용과 잦은 가격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
- 기존 미디어 기업들은 케이블 TV와 같은 전통적인 유선 방송 상품의 고객이 줄어들자, 구독자를 확보하고 업계 리더인 넷플릭스와 경쟁하기 위해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제 디즈니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같은 회사들은 콘텐츠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스트리밍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들의 전략에는 저렴한 광고 지원 모델 출시, 비밀번호 공유 단속 등이 포함되지만, '가격 인상'이 수익 개선에 더 빠른 효과를 가져왔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부사장 마이크 프롤릭(Mike Proulx)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자 확보를 우선시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 디즈니는 지난주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훌루, ESPN+의 통합 스트리밍 서비스가 회계 3분기 동안 처음으로 수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신규 가입자도 추가되었지만, 이러한 성과는 주로 가격 인상의 덕분이었다.
- 지난 5개월 동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맥스(Max), 컴캐스트의 피콕(Peacock), 디즈니, 파라마운트 등 4개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Streaming subscriptions in the U.S.



Note: Disney+ began its ad tier in December 2022. Paramount+ includes Showtime in its ad-free tier.
 Graphic: Gabriel Cortes / CNBC
 Source: Reporting by Justine Fisher / CNBC



CNBC 기사

美 '연착륙' 기대 다시 높아지며 S&P500 8월 하락분 모두 만회

소비·고용지표 시장 예상 웃돌아...나스닥도 5p 남겨두고 회복
 명목지표일 뿐 침체 우려 사라졌다 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와

미국 소비지표와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고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주가도 크게 올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8월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으며,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7월 말 증가에 턱밑까지 다가섰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7월 미국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1% 상승, 시장 예상치 0.3% 증가를 훌쩍 뛰어넘었다.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